

TV 27일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광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부~2부	3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8	00 코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00 SBS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 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튜닝생활제조(재)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 45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부부극장 골짜기(재)	00 KBS 뉴스 12	25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SBS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00 뉴스특보	0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 아카데미	00 거울방학 특선다큐 <미라클 보이 3부>(재)	30 피우자 민들레
2	50 직언직설	00 콘서트 필(재) 40 남도지오그래피(재)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재)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뉴스토크	00 후스토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재) 55 TV유치원 공대공	10 우리이야기 달라졌어요(재)
4	00 박종철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100경 완정정복(재) 55 튜닝 생활 제조(재)	25 고고 이야기 탐험대(재) 55 VJ특공대(재)	00 안녕 저두아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SBS 뉴스라이프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05 씨네마트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 드라마 <천상 여자>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오 마이 베이비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문/화/산/책 포플러	00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	00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11	00 혼자 사는 여자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미용실(재)	30 문화책길피	30 미리보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 45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닥터 후>	35 소치 2014 특집 별을 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개그 본능 ‘응사’에서 터졌죠”

김성균, 악역 벗고 ‘포블리’로 변신

‘포블리’(삼천포+블리)라니, 여성 연예인 이름에 사랑스럽다는 뜻의 ‘러블리’(lovely)에서 ‘-블리’를 붙여 부르는 애칭인데, 그 주인공이 악역 전문 배우 김성균(34)이라니,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속 94학번 하숙생 동기 중 가장 어리지만 최고 노안에 아기처럼 연약한 아토피 피부를 가진 부자집 아들 삼천포는 자존심 세고 아는 척은 꼭 해야 하고 깔끔 떨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울 완벽주의자다.

아기처럼 이기적이고 유치하다가도, 아기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매력으로 음울한 분위기의 서태지 마니아 윤진(도희 분)이와 가장 먼저 러브라인을 만들어 냈다.

처음 삼천포 역을 제안받고는 “정말, 열척, ‘(어처구니)’의 경상도 사투리’이,없,없,다.”고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주며 정색을 하고 말했다.

하지만 제작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질감을 느꼈다.

“순수한 촌사람의 감성을 가진 거예요.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창작하면서 노는 집단 같았어요. 모여서 그거 재밌겠다, 맞다, 까르르 이러면서 대본을 짜고 있더라고요.”

김성균은 물론 정우, 유연석 모두 데뷔한 지 10년이 넘는 중고 신인들이다. 제작진은 그들에게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찾아냈고 대중이 몰라보던 그들의 매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중 가장 놀라운 발견은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소름끼치는 살인마, 사이코 범죄 조



직의 일일에서 귀염둥이 하숙생 ‘포블리’로 변신한 김성균일 수밖에 없다.

드라마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김성균은 다른 마음고생을 했다고 했다.

삼천포의 인기가 한창 최고로 치달고 있을 때 영화 ‘응의자’의 개봉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김성균의 역할이 알려지는 것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언젠가는 코미디로 정말 뻥뻥 터뜨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연극을 할 때도 정통극으로 배웠기 때문에 주로 딱딱한 역이나 악역으로 훈련했거든요. 지금까지 숨긴 개그 본능을 이렇게 풀어 보게 될 줄 몰랐고, 또 이렇게 파장이 있을 줄 몰랐어요.”

지난 2년은 그의 배우 인생에 ‘폭풍’ 같은 전환기였다. 오랫동안 연극 무대에만 갇혀 그는 2012년 첫 영화 데뷔작인 ‘범죄와의 전쟁’과 ‘이웃사람’ 두 편으로 신인상 여섯 개를 휩쓸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상이 막 쏟아졌다”며 “뭣 모르고 했고 지금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

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첫 드라마인 ‘응사’로 ‘포블리’라는 애칭을 얻고 생전 처음 광고를 찍었다. 왜 진작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을까.

“연극을 할 때도 항상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연극은 몇 개월에 걸쳐 준비하고 공연 당일 날도 두 시간 전부터 몸을 데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자신 있게 무대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는 한 번 찍고 나면 평생 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외모 콤플렉스도 컸고요. 얼굴에 흉터가 많은데 이런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실례한 줄 알았어요.”

영화를 하고 나니 이번엔 드라마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 ‘응사’도 후반부에는 거의 생방송으로 찍었다. 자신은 그런 환경에 적응할 만한 즉흥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까 또 하게 되더라”며 “응사” 덕분에 그때그때 만들어가는 재미도 많이 느꼈다. 앞으로는 될 하든 지레 먹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BS

06:10 디문화 고부 열전 07:00 미술탐험대 07:15 정글북 07:30 부릉부릉 부르미즈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영 유치원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방귀대장 뽀뽀잉 08:50 곰디와 친구들 09:10 두디다콩 09:20 부모 〈친척 집에 갔어요〉 10:00 한국기행 10:20 요리비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윤석자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밥상 - 먹빔과 동지미국수〉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 13:05 지식채널e 클래식 13:10 겨울방학생활 1학년 13:30 겨울방학생활 3학년 13:50 겨울방학생활 5학년 14:10 배움나래1 14:15 토크쇼가 이야기 14:30 꾸러기 삼쌍여행 15:00 열려라 아바디스	15:15 꼬미기사 마이크 15:30 꼬미가복 코영클린 15:45 외골와를 친구들 16:00 덩동영 유치원(재) 16:20 캐니멀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뽀뽀잉(재) 17:15 시계마을 디카톡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18:00 미앤 마이 로봇 18:15 정글북 18:30 생방송 특목 보나하니	19:30 피들리팜 19:50 모피와 친구들 20:00 EBS 뉴스 20:20 요리비전 20:50 세계테마기행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지호스탄 1부 설원에 길을 놓다〉 21:30 한국기행 〈통영의 섬 1부 물메기의 섬 추도〉 21:50 디류프라이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22:45 달라졌어요 23:35 지식채널e 클래식(재) 23:40 생방송 EBS교과 대 토론
--	---	--	---

EBS플러스1

00:00 알짜 국어 문법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를 기술분석〉 01:40 포스입학 02:30 " <문학Ⅰ> 03:20 " <문학Ⅱ> 04:10 " <수학Ⅰ A형> 05:00 " <수학Ⅰ B형> 05:50 " <미적분과 통계기분> 06:40 " <영어 구문 투어> 07:30 " <영어 독해의 유형> 08:20 " <고교 vocabulary> 09:10 " <적분과 통계> 10:00 " <기하와 벡터> 10:50 " <적분과 통계>(재) 11:40 " <기하와 벡터>(재)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12:10 5분 고평 <물리> 12:10 수능길잡이 13:05 <영어독해 구문판> 13:05 <영어독해 유형판> 14:00 포스입학 14:50 " <문학Ⅰ>(재) 15:40 " <문학Ⅱ>(재) 16:30 " <수학Ⅰ A형>(재) 17:20 " <수학Ⅰ B형>(재) 18:10 " <미적분과 통계기분>(재) 19:00 " <영어 구문 투어>(재) 19:50 5분 고평 <물리>(재) 20:00 포스입학 <고교 vocabulary>(재) 21:00 " <적분과 통계>(재) 22:00 " <기하와 벡터>(재)
---	---

EBS플러스2

07:00 2014 공민중개사 시험대박강좌 07:30 나의 성공비결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검정고시 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수학①> 10:30 " <역사①> 11:10 " <국어②> 11:50 " <수학②> 12:30 중1 학습비법 특강 <국어> 13:10 중2 학습비법 특강 <국어> 13:50 TV 중학 <수학③>(재) 14:30 " <국어③>(재) 15:10 스물렌드	15:20 초등 1년 EBS 겨울방학생활 15:40 초등 3년 EBS 겨울방학생활 16:00 초등 5년 EBS 겨울방학생활 16:20 초등 개념 잡기 16:40 나의 성공비결(재) 17:20 초등 개념 잡기 <국어>(재) 18:00 TV 중학 <문학③> 18:40 " <비문학③> 19:20 " <국어①②>(재) 20:00 " <수학①>(재) 20:40 " <역사①>(재) 21:20 " <국어③>(재) 22:00 " <문학③>(재) 22:40 " <비문학③>(재) 23:20 세계의 아이들
--	--

知天命이 모든 오늘의 운세

1월 27일(음 12월 27일 戊戌)



子

36년생 모순점을 방지하지 말라. 48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운세가 강해진다. 60년생 속단하다가는 큰 오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 72년생 벗어나야만 한다. 84년생 성장상을 위한 진통제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7, 80



丑

37년생 얌으려 갔다가 오히려 보태주고 을 수다. 49년생 배타적인 이가 있다. 61년생 통제할 줄 알아야 완성하리라. 73년생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85년생 역동적으로 추진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5, 04



寅

38년생 표현이 적절해야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니라. 50년생 피로를 얻어 놓고 이행해야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62년생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74년생 인식을 함께라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6, 73



卯

39년생 실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51년생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큰일에 몰입할 수 있느니라. 63년생 오버 센스 한다면 만사가 틀어진다. 75년생 미련을 버리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22, 57



辰

40년생 실질을 우선해야겠다. 52년생 긍정적인 마인드와 결단성 있는 진행이 성사를 이끄는 요체가 되는 법이다. 64년생 번거로움이 상당할 것이니라. 76년생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3, 66



巳

41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살펴 볼 일이다. 53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65년생 처리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77년생 무난한 것이 가장 오래갈 수 있는 비결이니라. 행운의 숫자 : 06, 23



午

42년생 합리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리라. 54년생 안정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니 마음 놓아도 된다. 66년생 자연히 해결 될 것이니라. 78년생 오래 두었던 것이 큰 효과를 볼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9, 74



未

43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규모와 부가작 이익이 달라지겠다. 55년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게 된다. 67년생 조정이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 79년생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대범하자. 행운의 숫자 : 37, 88



申

44년생 강력한 장해 요인 앞에서 끈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56년생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68년생 관련 사항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80년생 마무리까지 깔끔해야 성사되리라. 행운의 숫자 : 46, 30



酉

45년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57년생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겠다. 69년생 미리 방지하지 않으면 견잡을 수 없게 되리라. 81년생 확인이아말로 안전에 관한 가장 투명한 보증서이니라. 행운의 숫자 : 61, 38



戌

46년생 어그입이 처리해야 한다. 58년생 광범위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니라. 70년생 확장하려 하지 말고 유지 관리함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2년생 보편타당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5, 47



亥

47년생 한 번 바람이 불면 끝없이 계속 되리라. 59년생 가까운 이로 인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운로에 놓여 있느니라. 71년생 총돌이 생길 수도 있다. 83년생 기쁜 일로 인해 대단한 신명을 갖는다. 행운의 숫자 : 48, 6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

걸그룹 너무 야했나 ... 안무 수정

걸스데이·달샤벳 등

섹시 콘셉트를 표방한 걸그룹들이 선정성 논란이 뜨겁자 일제히 안무를 수정했다.

걸스데이, 달샤벳, 에이오에이(AOA), 레인보우 블랙은 저마다 섹시미를 내세워 활동 중이지만 의상과 춤, 뮤직비디오 장면이 선정적이란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 가요 프로그램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지적과 15세 이상 시청 등급을 고려해 기획사들에 일부 동작의 수정을 요청했다.

KBS 2TV ‘뮤직뱅크’의 김호상 CP는 “지난 24일 방송 당시 논란이 된 걸그룹들 기획사에 과한 안무의 수정을 요청했다”며 “걸스데이, 달샤벳, 에이오에이, 레인보우 블랙 등은 사전 녹화를 통해 의상을 체크하고 동작을 완하시켰다”고 밝혔다.

기획사들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는 분

위다.

걸스데이 소속사 드림터엔터테인먼트는 “다수의 걸그룹들이 비슷한 시기 섹시 콘셉트를 들고나와 말이 많은 만큼 ‘뮤직뱅크’ 제작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깃털로 다리를 훑는 동작 등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달샤벳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도 “지난 18일 MBC ‘음악중심’에서 제작진이 안무를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는 손의 위치를 바꿨다”고 말했다.

레인보우 블랙은 걸그룹의 선정성 논란이 뜨겁자 뮤직비디오와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안무를 수정해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 컴백했다. 에이오에이도 멤버 해진이 혼자 무대에 넘는 장면과 멤버들이 짧은 치마의 지퍼를 올리는 동작을 뺐다.

그러나 제재가 덜한 케이발TV에서는 안무를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외강내유’ 물메기탕의 풍미



요리비전(EBS·오후 8시20분) = 정약전은 자산어보(鱖山魚譜)에서 ‘고깃살은 매우 연하다. 뼈도 무르다. 맛은 싱겁고 곧잘 술병(酒毒)을 고친다’고 물메기를 소개하고 있다. 뚝배기 외모지만 속내는 부드러운 물메기는 오직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여야 만날 수 있는 귀한신물. 특히나 물메기로 끓인 뜨끈한 ‘물메기탕’은 술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니 제 몸값을 톡톡히 해낸다. 물메기로 부쳐 먹는 ‘물메기전’을 한입 베어무니 풍성한 육즙이 은 입안에 터져 자꾸만 입맛을 당긴다. 찜, 회무침, 내장찜, 알젓까지 물메기가 채워준 맛있는 밥상을 만나러 남해읍 점마을을 찾았다. 도시로 떠난 자식들도 매년 겨울이 오면 물메기를 기다린다. 애어른 나는 세 딸은 엄마에겐 살아야 할 이유와 기쁨이 되었다. /연합뉴스

세 딸 엄마로서의 삶



인간극장(KBS1·오전 7시50분) = 트럭에서 옷을 파는 노점상을 시작한 지 2주째가 된, 초보 장사꾼 윤진희(43)씨. 그녀는 6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잡초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세 딸의 엄마였기 때문이다. 믿고 의지하던 남편의 죽음 후 방황하며 좌절하며 세상을 포기하려고도 했던 진희씨. 그런 그녀의 결을 지킨 이는 둘째 딸 유나의 친구 엄마였던 엄정미(44)씨였다. 그리고 한국무용 유망주로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하겠다는 첫째 권리나(16)와 언니의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 아끼고 저축하는 둘째 유나(14)와 셋째 예나(12).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들지 않고 해맑고 바르게 자라나는 세 딸은 엄마에겐 살아야 할 이유와 기쁨이 되었다. /연합뉴스

한반도 공룡 발자취를 따라서



1억년 : 뿔공룡의 비밀(MBC·밤 11시15분) = ‘1억년 : 뿔공룡의 비밀’은 경기도 화성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의 실체를 학계의 자료와 논문을 토대로 추적, 백악기에서의 삶을 복원하는 한편, 그 진화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사실적으로 재구성해낸 이동희 감독의 야심작이다. 소형 초식공룡이었던 뿔공룡은 진화를 통해 대형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와 대적할 만한 대형 초식공룡으로 거듭났다. 어떻게 성공적인 진화를 할 수 있었을까. 중국, 캐나다, 미국에서 발견되는 뿔공룡 화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북미대륙으로 이어지는 뿔공룡의 이동경로와 진화과정을 추적한다. /연합뉴스